

#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개시 4일 만에 '80.4%' 지급

광주시 복구(구청장 문인)가 추석 명절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현상이 지역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복구에 따르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광주생생카드가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이 신청 개시 4일 만에 '80.4%'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민생안정 특별대책 일환으로 '40억여 원'을 투입해 마련된 생활안정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등 장기간 지속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시행됐으며 지난 10일 지급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복구는 명절 연휴 전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여 지역상권의 추석 특수 시너지 효과를 내

고자 10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지급 기간'을 설정하고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현장 창구'를 운영하는 등 수혜 대상자가 편리하고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이에 전체 지급 대상자 가운데 80.4%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추석 전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며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일부나마 덜 수 있었다.

복구 관계자는 "아직 지급하지 못

한 대상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가능한 이달까지 지급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복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지급 기한 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을 수령 하면 된다. /김재섭 기자

## 김이강 서구청장, 지방정부협의회 차기 상임회장 만장일치로 선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제6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서구는 최근 광주 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에서 열린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이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차기 상임회장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출범했으며 전국 33개(광역시 3개, 기초 30개) 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김이강 차기 상임회장은 "광주 서구에서 지난 2년간 주민들과 함께 실현해 온 내결에 따뜻한 생활정부, 착한도시 서구의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협의회는 9일 이재준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등 16개 회원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서구는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결에 생활정부'를 주제로 ▲바로문자하랑께 신속·정확 행정 ▲공직 친절도 대폭 향상, 마을의 미인 캠페인(미소피며 인사하기) 친절문화 확산 ▲마을 BI(Brand Identity) 등 전국 유일의 18개 동 브랜드화 ▲배움으로 잇는 세큰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음악으로 잇는 마을합창단 등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착한도시 서구'의 구정방향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가명 기자

## 광산구 첨단1동 지사협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도입

광주 광산구 첨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애, 이하 지사협)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을 도입했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은 AI(인공지능) 보이스봇을 활용하는 돌봄서비스로, 주 1회 AI가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등 안부를 묻고 실제 사람처럼 대화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대상자에게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행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담당자에게 신속히 알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사협은 고령가구가 겪는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80세대에게 케어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후 케어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박순애 지사협 위원장은 "1인가구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3월부터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 안전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 인공지능(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 2~6일 개최하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동구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고 축제 현장 시설물 등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 동구 "추억의 총장축제, 안전하게 즐기세요"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 2~6일 개최하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동구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고 축제 현장 시설물 등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위원회에서는 축제 안전관리계획과 문제점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동구 주민안전과(동구안전관리자문단), 동부소방서·경찰서와 민관 합동으로 축제 현장을 사전 점검기로 했다. 또한 총장축제가 열리는 10월 2~6일 5·18민주광장에서 민관 합동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인파 관리를 통한 안전 총괄반(동구청) ▲화재·응급조치 구조반(동부소방서) ▲범

외·교통 안전반(동부경찰서) ▲분야별 민간전문가(동구안전관리자문단) ▲응급 의료반(동구보건소) 등을 운영, 축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인파(밀집)에 따른 사건·사고를 방지하고자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시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 남구, 스트리트 푸드존서 청년축제 개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청년들이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축제가 21일 백운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이 주최하고 남구 청년네트워크에서 주관한 남행열차 축제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구청과 남구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축제 개최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 관내 청년들을 위한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이번 축제의 주제인 남행열차는 남구청년 동행 열차의 줄임말로, 관내 청년들이 축제 참여를 통해 자신들이 처한 진솔한 목소리를 공유하면서 미래 삶을 위한 꿈과 목표 달성까지 이루기를 희망하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청년축제에서는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코너를 만날 수 있다.

먼저 1부 청년특목 마당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펼쳐진다. 광주대학교 밴드가 무대에 올라 1시간 가량 공연을 선보이며, 개회식 뒤에는 청년들이 실제 경험했던 다양한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경연을 펼치는 '패배를 넘어' 코너가 이어진다. 2부 청년 스포크 마당에서는 거리공연을 비롯해 레트로 게임이 축제의 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이성 청년간 짝을 찾아 떠나는 '나는 SOLO 청년'과 DJ 및 댄스팀 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행사장 주변에서는 청년 포차와 청년 정책 홍보 부스를 탐방하는 도장 찍기 여행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인생네컷과 음료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정희태 기자

## 【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 】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건양대	사	충남	단독		연세대(미래)	사	강원	단독	유지*
경남대	사	경남	단독		영남대-금오공대	사·국	경북	연합	
경북대	국	대구	단독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사	초광역 <sup>2)</sup>	연합	
동명대-신라대	사	부산	연합		원광대+원광보건대	사	전북	통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사	전남	연합		인제대	사	경남	단독	유지*
동아대-동서대	사	부산	연합		전남대	국	광주	단독	유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사	초광역 <sup>1)</sup>	연합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	국공사	경남	통합(연합)	
대구한의대	사	경북	단독		충남대+한밭대	국	대전	통합	
목포대	국	전남	단독		한남대	사	대전	단독	
순천향대	사	충남	단독	유지*	한동대	사	경북	단독	유지*

1) 대구-광주-대전 / 2) 울산-경남 / \* '23년 본지정 평가 미지정 대학으로 예비지정 자격 유지 결정

■ 국립 일반대 / ■ 사립 일반대 / ■ 전문대